

대행 스님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티끌 하나 불을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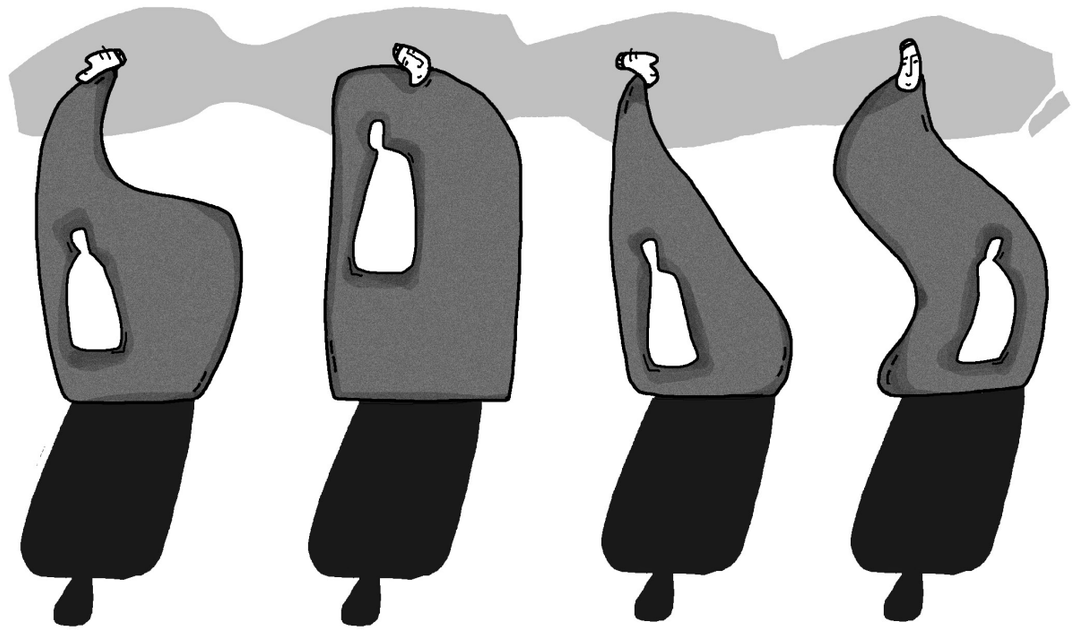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기복으로 믿는 게 불교가 아니라 우리 진리 이 자체, 우리 살아나가는 삶, 생활 또는 생물에 의해서, 일체를 생물이라고 볼 때 그 생물 속에서 과학이니 하는 문제가 다 나온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불교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걸 분별해서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이 돼 있질 않은 거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첫째, 무조건 믿는다. 믿음으로써 물러서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가 의심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다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일상생활을 돌려서 자기로 하여금 일체 만법이 나고 들게 하는 참자기의 맛은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스님네들이나 또는 부처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야, 너희들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이 다 색이자 공이다. 즉 공이자 또 색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든지 둘이든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찰나찰나 나투며 화해서 돌아가니까 이건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수 없으니 공이라 이거야. 보이는 것이자 공이다 이거야. 하는 거는 열 가지를 하더라도 열 가지가 다 보이는데 그것이 아주 찰나찰나 고정되지 않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없어서 공이 아니라 너무 빨리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공이야! 이거를 알라 이거야. 그게 주인공이다, 이름해서. 과거심이나 현재심이나 미래심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합쳐서 무궁무진하게 진화되면서, 화하면서 차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돌아가거든.

그런데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하면 오히려 저건 이상스럽다고 하고 오히려 "관세음보살 찾으시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따로 따로 따로 해 놓는 그게 옳다고 하는 거야. 옳게 생각이 드는 거라, 쉬우니까. 자꾸자꾸 그것을 찾고 또 내가 병이 들면 약사보살을 찾아야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고 그 약사보살을 찾을 때는 반드시 절에 가서 약사보살을 모셔 놓은 데 가서 청하고, 석가모니 찾고 관세음보살 찾고 지장 뭐, 보현, 문수 이렇게 자꾸 찾는다 이거야. 심지어는 용왕까지 찾으러 다녀. 또 산에 올라가면 물 떠 놓고 빌지를 않나.

그렇게 해 가지고 병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신병자가 되는 것인데, 내 집이 비면 빈집이 되기 때문에 영계가 들락날락해도 몰라. 여러분이 중심을 세우지 않는다면 집은 빈집이라. 그러면 빈집에 유전성이나 세균, 악령, 영력(靈力)이, 영이 그냥 쉴 사이 없이 들락날락해도 여러분은 어찌해 볼 수 없는 거야.

그건 우리가 최초의 한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긴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내가 생긴 걸로 안단 말이야. 나로부터 생긴 걸 알아야 그와 나와 둘이 아니게 이것이 공동체로 돌아가고 공체로 돌아가고 공심으로 돌아가고 공용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노예 노릇을 하는 거야. 자유인이 못 되고 노예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 항상 복잡하고 마음이 작고 가난하니까 가환, 우환 그 모든 복잡한 일들이 항상, 요거 끝마칠 때 되면 요거 나오고 요거 끝마칠 때 되면 또 요거 나오고, 쉴 사이 없이 돌아오는 거라.

우리가 한 가지의 근본을 알면…, 그래서 전자의 부처님들도 그랬거든. "책도 보지 말고 다 보지 마라. 물질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망상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은 네 마음으로, 안으로 돌려라. 돌려라."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도 그 뜻을 옮기지 못한다 이거야. 가르치는 사람도 그걸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내가 끌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몸을 어떻게 끌어 가지고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각 절에 부처는 똑같은 부처지마는 그 절에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어.

그렇듯이 설법을 해도 설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건 만든 얘기야. 자기가 목마르면 그냥 물 떠 먹듯이, 여러분을 만나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도 다 말할 줄 알잖아요? 말할 줄 알면 족하지 뭘 또 거기서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해야 옳을까. 내가 목마르면 뭘로 떠 먹어야 옳을까. 목마르면 무엇을 떠 먹어야 옳을까. 무슨 그릇을 가져가야 옳을까.' 이 걱정을 하느냐 이거야. 그까짓 놈의 거 못 하면 못 하고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지. 열 마디, 백 마디보다 실천에 한 번 옮기는 게 그토록 어렵다 이거야.

그러면 한마디가 법이 될 때 그대로 법인데 어찌 한데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야. 벌써 그걸 생각해서 내가 계획을 하고, 그 얘길 하려고 우선 준비를 해 놨다면 그건 벌써 죽은 거야. 죽은 소리다 이거야. 모두가 한생각을, 이렇게 말을 함이 없이 탁 할 때 벌써 이것은, 못하든 잘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벌써 이거 하나만 들어도 이건 법이야. 한 번 올려다보고 한 번 내려다보고 한 번 여러분을 쳐다보면 그걸로써 족한 거야, 본래. 하지만 여러분이 나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체로서 공용을 하기 때문에 나 아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가 이끌고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하고 또는 길을 인도해야 해.

그런데 길을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저런 길이 길이 아니잖아, 이 공부하는 것은. 길이 없는 길을 찾는 거야, 지금! 만약에 내 발이 있다면 발이 없는 발이 있어야 없는 길을 디딜 줄 알아. 이 손은 한계가 있지만 이 손은 한계가 없어! 여러분이 부처님 법이 이렇게 안 되느니 되느니 이걸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이 손이 짧아. 닿질 않아. 왜 닿지 않느냐? 왜, 누가 손 길지 말랬나?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요한 치도 넘길 수가 없고, 여러분이 지혜가 넓다면 그 지혜로써 도구가 돼서, 무기가 돼서 일체 만법을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자동적으로.

불교가 죽은 불교가 아니야. 우리 생활이 불교며 세계적으로 생동력 있게 돌아가는 게, 지금 현재에 찰나찰나 돌아가는 게 불교야. 불교라는 것이 앉아서 좌선을 하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고 공에 빠져서 가만히 수련을 잘하는 게 불교가 아니야. 앉으나 서나 먹으나 똥을 누나 모든 것이 일체, 함이 없이 같이 공생하면서 공용을 하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이나 태양의 근본이, 천지의 근본이 다 인간의 한 점의 근본이야. 같이 돌아가. 그 도리를 알라 이거야. 그럼으로써 우리는 걱정 없이 이리로 가도 편안하고 저리로 가도 편안해. 저기다 세워 놔도 굶어 죽을 바가 없고 저기다 세워 놔도 집이 없어서 못 잘 여지가 없거든. 저런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가 말을 못 하니깐 우습게 생각하죠? 요런 뱀 하나가 지나가는 데도 우습게 생각할 테죠?

여러분 중에 오늘 처음 뵌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 다시 되합니다마는, 이 미생물에서부터 나 아님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요기서 요기 옮겨 놓으면, 모습만 바꿔 놓으면 여러분은 모르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도리를 알면 '너 그전에, 내가 나기 이전에 너하고 살 때에 나를 갖다가 도끼로 쳐서 죽였지. 내 이 원수 갚겠다.' 하고 아마 들이덤빌 거야, 알면.

그러나 그 도리를 다 아는 사람이라야 열쇠를 가질 수가 있고 금고를 맡을 수가 있어. 원수나 갚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는 열쇠가 맡겨지지 않고 금고가 맡겨지지 않아. 그건 소인이기 때문이야. 대인은 원수로 갚는 게 아니야. 덕으로 갚아. 덕으로 인도해. 그것이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이기 때문이야. 몰랐을 때 과거의 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른다고 해도, 또 어떠한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원한도 없고 원망도 없고 증오도 없어. 그것이 참자비요,

☞ 22면으로 계속

